

자료 2024-09-06 / SINCE 1990~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광주은행

◆ 지역아동센터와 광주과학관 문화 체험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광주지역 아동센터 아동 40여 명을 국립광주과학관으로 초대해 체험 견학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체험은 광주은행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방학 중 자녀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아동들에게 문화 체험의 기회와 관련 분야의 진로 탐색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

됐다.

이날 과학관에서는 △2024 다이노 월드 공룡특별전 △3D프린터로 만든 음식 △로봇댄스 공연 △드론과 인공지능 로봇 작동 체험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체험활동 및 관람을 진행해 아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아동·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지속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 100만원 모으면 우대금리 제공하는 ‘도전 골든100적금’출시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100만원을 모으면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비대면 전용 상품인 ‘도전 골든 100적금’을 출시했다고 말했다.

‘도전 골든100적금’은 개인 고객(1인 1계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월 적립한도 20만원 이내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6개월제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영업점 방문 없이 광주와뱅크(APP)와 모바일웹뱅킹(WEB)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고병일 은행장은 “새롭게 출시한 ‘도전 골든100적금’은 복잡한 조건 없이 100만원만 모으면 간편하게 우대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단기간에 빠르게 목표금액을 달성한다는 점에서 고객에게 성취감과 꾸준한 저축습관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금융니즈와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호고속

◆ "고마워요 기아 타이거즈!"...금호익스프레스 전남·북 고속버스 늘렸다.



금호고속(대표이사 사장 이계영)은 29일 “기아 타이거즈 야구경기를 관람하기 위한 전남북 지역 주민들을 위해 주요 노선에 고속버스를 추가 투입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금호고속은 기아 홈경기 관람을 원하는 전남북 지역 관중의 증가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전주시 노

선에 고속버스를 추가로 배차했다.

금호고속은 기존 광주광역시에서 목포시(37회), 순천시(24회), 여수시(30회), 전주시(37회)를 운행하던 고속버스를 목포시 2회, 순천시 2회, 여수시 1회, 전주시 5회 추가로 투입해 운영 중이다.

이계영 대표이사 사장은 “기아가 선두를 달리면서 고객들의 수요가 증가해 증차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기아 홈경기가 있는 날의 매표현황을 수시로 확인해 기아 팬들의 고속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신세계

◆ 비엔날레 후원 지속...누적 19억원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이동훈)가 오는 9월 7일 개막하는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

1995년 현지법인으로 설립된 광주신세계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광주비엔날레가 열릴 때마다 빠짐없이 후원금을 기부했으

며 지금까지 누적 후원금은 19억원이다.

이동훈 대표이사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도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지역민이 다 함께 즐기는 문화예술 향유의 장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 추석 선물 세트 본 판매 돌입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이동훈)는 보름 앞으로 다가온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추석 선물 세트 본 판매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고객들이 명절에 많이 찾는 청과와 축·수산물 선물 세트 이외에 건강기능식품, 잡화 등을 더해 선택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29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이번 추석 선물 세트는 청과와 축산 등 명절 선물의

베스트셀러 품목들은 물론 광주신세계에서 특별히 엄선한 창평 한과 등도 만날 수 있다.

이동훈 대표이사는 “소중한 분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명절에 감사한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광주신세계가 추석 선물 세트를 정성껏 준비했다”면서 “광주신세계의 품격을 담은 프리미엄 선물 세트부터 가성비를 충족시키는 것까지 다양한 상품으로 선택의 즐거움을 맛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

◆ 광주시·산하기관 '캐스퍼 전기차' 우선구매·판로 확대 나선다.



광주글로벌모터스(대표이사 윤몽현)와 광주시는 산하 공공기관공동으로 28일 ‘캐스퍼 전기차 우선구매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한민국 제1호 상생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지난달 2만3000대 양산을 목표로 캐스퍼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다. 양산된 차량은 유럽·일본 등 54개국에 수출될 예정이다.

또 빛그린산단을 중심으로 ‘미래차 핵심부품 개발 기업지원 기반시설’을 내년에 구축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제품 제작, 전기차 부품 개발, 시험·평가·인증 등 미래차 핵심부품 전주기 원스톱(ONE-STOP) 지원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DH글로벌

◆ 광주에 등지 트 DH오토웨어 “1000억 투자”



DH글로벌(회장 이정권)은 27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제1회 글로벌 소부장 기술포럼’에서 시와 이 같은 내용의 투자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광주 미래차 ‘소부장’ (소재 · 부품 · 장비) 특화단지 앵커기업으로 선정된 DH오토웨어는 빛그린 산업단지 내 1만4916㎡ 용지를 매입해 오

는 10월 준공을 목표로 평택공장 자동차 전장사업부 이전을 위한 공장을 짓고 있다. 앞서 빛그린 산단 내 2만4049㎡ 부지에 마련한 공장에서는 자동차 지그(JIG · 제품을 고정하고 반복적 제조 공정을 가능하게 하는 특수공구)를 생산 중이다.

주변 협력업체 등과 공급망을 개선해 앵커기업의 역할이 커질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이 회사는 광주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해 중국 칭다오 공장을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보해양조

◆ 제30회 통계의 날 국무총리상 수상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가 지난달 30일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통계청 주관 ‘제30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보해양조는 △1992년부터 통계청에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 자료 제공 △사업체 시설 견학을 통한 통계 실무교육 기회 제공 △조사 제품을 이용한 대규모 통계조사 홍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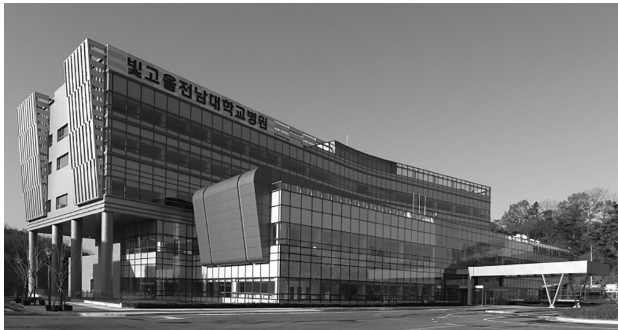
통계 조사를 활발히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통계의 날’은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통계업무 종사자의 자긍심과 사기를 북돋기 위해 1995년 9월 1일 제정됐다. 2009년부터는 통계법에 근거한 정부 기념일로 격상됐다.

임지선 대표이사는 “국가통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데이터 관리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남대병원

◆ 류마티스학회 최고기관 선정



빛고을전남대병원은 최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6차 아시아·태평양 류마티스학회(APLAR)’에서 ‘Center of Excellence(최고 기관)’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1963년 시드니에서 설립된 아시아·태평양 류마티스학회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 내 류마티스

센터를 대상으로 △연구 △수련과 교육 △환자 진료 등 3가지 분야 업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빛고을전남대병원 류마티스내과장 박동진 교수는 “국제학회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빛고을전남대병원 류마티스내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우수 기관이라는 국제적 위상에 걸맞도록 임상과 연구, 수련 등 각 분야에서 돋보이는 성과를 달성·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전KDN

◆ 에너지 절약 캠페인 실시



한전KDN(사장 김장현)은 지난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인근에서 에너지절약을 통한 건강한 여름나기 시민인식개선 캠페인을 시행했다고 29일 전했다.

한전KDN 직원들은 이날 KEET(대한민국 기후환경 에너지대전)이 개최되는 김대중컨벤션센터를 찾은 관람객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에어컨 온도 26도 이상 유지, 사용하지 않는 전기 플러그 빼기, 전기

보다 자연채광 이용하기 등 내용을 안내했다.

김장현 사장은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로 온 국민이 힘든 시기지만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에너지절약 또한 필수적인 행동이다”면서 “국내 유일한 에너지ICT 전문기업인 한전KDN은 안정적 에너지 공급과 ESG경영에도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한전KPS

◆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 '28년 연속' 대통령상



한전KPS(사장 김홍연)가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에서 28년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경진대회는 전국 산업현장에서 혁신적인 품질향상에 기여한 우수 분임조를 선정해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기업

품질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으며 올해 대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경기도, 수원시가 공동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했다.

김홍연 사장은 “고품질 · 무결점 책임정비를 통해 발전설비의 안정과 안전을 책임지고 고객 가치를 창출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그린사업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해 국민과 고객들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알림

본란은 본회 회원사 소식을 게재하고 있사오니 대표 동정, 행사, 제품 소개 등 기타 홍보하실 내용을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 : 최수용 팀장

● e-mail : gjef3425@naver.com

<제1660회 금요조찬 포럼>

좋은차(茶)는 어떤 것인가?

(조기정 교수)

1660회 금요조찬포럼은 조기정 보성차문화연구회 회장을 초청하여 「좋은차(茶)는 어떤 것인가?」를 주제로의 기원설부터 전파, 분류, 제다 공정, 성분, 효능, 차문화, 가치 등에 관해 이야기했다.

차는 제다과정과 시기에 따라 분류하며, 제조방법이나 발효정도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색으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다.

1. 녹차 : 찻잎과 탕색 모두 녹색으로 찻잎을 덪는 살청 단계가 중요한 비발효차
2. 백차 : 차를 만드는 과정이 간단하여 차 본연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약발효차
3. 황차: 찻잎과 탕색 모두 황색으로 민황 과정이 주요 특징인 후발효차
4. 청차: 주로 민남, 민북, 광둥, 대만으로 발효도의 범위가 가장 넓게 분포하는 차다.
5. 홍차: 마른 찻잎은 검은색이고 탕색은 붉은색으로 완전 발효차이다.
6. 흑차: 청병과 숙병으로 분류할 수 있는 후발효차이다.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차를 마시고 경험으로 좋다고 느꼈다면, 현재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차에는 약 500여 종의 화합물이 있고 30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는 일분이면 갈증을 해소하고 한 시간이면 느긋해지고 한 달이면 건강해지고 평생 마시면 장수한다고 한다. 대표적인 차의 효능으로는 세균억제효과, 고혈압, 암세포 번식 억제, 충치 예방, 입 냄새 제거 효과, 숙취 제거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차 문화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민가 중 하나로 조차일충(早茶一盅), 일천위풍(一天威風): 아침에 한 잔의 차를 마시면, 하루가 위풍당당하고, 오차일충(午茶一盅), 노동경송(勞動輕鬆): 오후에 한 잔의 차를 마시면, 일하는 것을 가볍게 해준다. 만차일충(晩茶一盅), 제신거병(提神去病):저녁에 한 잔의 차를 마시면, 정신을 일깨워주고 병을 없애준다. 일일삼충(一日三盅), 뇌타부동(雷打不動:하루에 석잔의 차를 마시면, 벼락이 쳐도 꿈쩍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차 문화는 정신적 가치, 예술적 가치, 사회적 가치, 물질적 가치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가치는 향후 더욱 증대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업의 투자를 통해 보다 고도화, 규모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많은 관심 바란다며 강연을 마쳤다.



1. 경제 동향

◆ 경제6단체,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출범식」 개최 (8.23)

-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이하 경제계)는 8월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금융계, 학계, 방송계, 종교계와 공동으로 민간 주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출범식을 개최
- 이날 출범한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는 경제계·금융계·학계·방송계·종교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한 협력체계로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민간 분야에서 이처럼 큰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각계의 대표적 인사들이 공동대표를 맡음.

* 공동대표 : (경제계) 손 경 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금융계) 조 용 병 은행연합회 회장

(학 계) 이 광 형 KAIST 총장

(방송계) 박 민 KBS 사장

(종교계) 진우스님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

- 2각계 주요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출범식에서 공동대표들은 ‘우리 아이 우리미래’라는 표어(캐치프레이즈) 아래 저출생 문제 관련 부문별 활동계획을 발표하고, 실천과 협력 의지를 담은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공동선언문」을 채택
- 손경식 경총 회장은 경제계를 대표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은 물론 국민적 관심까지 범국가적 차원에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부담을 줄이는 근로환경을 만드는데 경제계가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이를 위해 “직장에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힘.

◆ 경총,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제출 (8.28)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8.27(화) 한국회계기준원에 제출
-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조치를 8월 말에 종료하기로 한 데에 따른 것
- 경총은 파리협정 이후 국제적 공감대가 보편적으로 형성된 기후 분야부터 지속가능성 공시를 추진하되, 기후 분야 외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는 기업이 주제별로 선택하여 공

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

- 일반 재무제표 정보와 달리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는 데이터를 획득·관리하는 데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만큼, 우선순위를 고려해 기후 분야 공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
- 특히 주요 쟁점사항 중 하나인 공급망 내 온실가스 배출량, 즉 Scope 3 공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
-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는 기술적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산업계 전체가 과도한 비용 부담과 그린워싱 리스크에 무방비로 노출된다고 진단
- 기업들은 통일된 Scope 3 배출량 산정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물리적 공시 부담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호소
- 국제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HG 프로토콜’의 경우도 개별 기업의 해석에 따라 적용하는 산정 범위가 다르고, 동일한 산정 범위 내에서도 산정 방법(예. 연료기반, 거리기반, 지출기반)에 따라 배출량 값 상이
- Scope 3 배출량 데이터가 대부분 추정치라는 점도 정보의 유용성을 저해
- 공급망 내 중견·중소기업은 배출량을 일일이 측정하기 어렵고, 설령 측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값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한계를 노정해 대다수 기업은 정부가 제시한 배출계수를 이용해 추정치를 공시하고 있으나, 추정치에 기반한 정보는 그 자체로서 ‘정확한투자정보 제공’에 역행
- 과도한 비용 부담도 문제로 경총은 재계순위 20~30대 그룹 회사에서 Scope 3 배출량 공시를 위한 내부 준비(전문컨설팅, IT시스템 개발·구축 및 유지, 담당자 인건비, 교육·훈련비 등)에만 연간 최소 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검·인증 비용과 원재료별 전과정 평가(LCA) 데이터 수집 비용이 제외된 것으로, A식품 회사의 경우 대상 원재료 품목 수에 따라 80~600억원의 LCA 비용 별도 소요
- 기준서 제101호(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추가 공시사항)에 대해서는 ‘지속가능성’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하고, 내용상 국제적 정합성도 떨어지며, 부처별로 기업 정보공개 제도가 이미있는 상황에서 중복공시 부담만을 확대한다는 이유로 철회 요구
- 공시 의무화 일정과 관련해서는 올해 말 공시기준이 확정되더라도 기업 현장의 안정적인 공시 시스템 구현과 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 및 기반 조성까지 갈 길이 먼 만큼, 2028 회계연도부터 ‘거래소 공시’를 적용(2029년 공시)하는 방안을 제안
- 우선 회계기준원의 공시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은 만큼, ‘세부기준’과 객관적 공시 방법론을 담은 ‘공시기준 활용 가이드’가 제시될 필요
- 기업 공급망 관리의 허들로 작용하는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등 경영간섭 금지 규정도 정비될 필요

- 실질 지배력이 미치지 않는 종속회사나 외국 기업의 귀책으로 발생하는 공시 공백에 대해서는 보고기업 책임을 면제하는 등 폭넓은 보호장치(Safe Harbor) 마련 필요
- 산업부가 민관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 공급망 탄소 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2026~2027년에 완료되는 점도 감안

◆ 고용노동부, 「2024년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8.29)

〈 고용 부문('24.7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기준) 〉

- (종사자 수) 사업체 종사자는 2,013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만 4천명(0.7%) 늘어나며 2021년 3월부터 41개월 연속 증가
- (입·이직) 입직자는 101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천명(△0.6%) 감소했고, 이직자는 100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과 유사한 수준

〈 근로실태 부문('24.6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기준) 〉

- (명목 임금)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명목 임금총액은 386만 1천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2만 4천원(3.3%) 증가
- (총 근로시간)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47.5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1.8시간 (△7.4%) 감소
 - ※ '4년 6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월력상 근로일수는 전년동월대비 2일 감소(21일 →19일)

['24.상반기 근로실태]

- (명목 임금) 상반기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명목 임금총액은 403만 2천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만 4천원(2.4%) 증가
 - ※ 사업장 규모별 명목 임금상승률(상반기, %) : [300인 미만] 3.2, [300인 이상] 0.3
- (총 근로시간) 상반기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54.1시간으로 전년동기 대비 2.8시간(△1.8%) 감소
 - ※ '4년 상반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월력상 근로일수는 전년동기대비 2일 감소

◆ 통계청, 「2024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8.29)

- 2024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96만 1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5% 증가(실

질소득은 전년동기대비 0.8% 증가)

* 전국 1인 이상 일반가구(1인 가구 및 농림어가 포함)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2023년 3분기(3.4%)부터 4개 분기 연속 증가세 유지(전년동기대비 기준)

▶ 가구당 월평균 소득 분기별 증가율 추이 : $\Delta 0.8$ (3.2q) \rightarrow 3.4(3q) \rightarrow 3.9(4q) \rightarrow 1.4(4.1q) \rightarrow 3.5(2q)

○ 경상소득은 487만 3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4% 증가

- 소득항목별로 살펴보면, 근로소득은 314만 6천원(3.9%), 사업소득은 94만원(1.4%), 이 전소득*은 73만 5천원(2.4%)으로 증가

* 공적이전소득(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등)은 전년동기대비 7.2% 증가, 사적이전소득(부양의무 자, 친인척 등에게 받은 금액)은 전년동기대비 8.5% 감소

○ 비경상소득*은 8만 8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7% 증가

* 정기적이지 않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경조소득, 퇴직수당 등)

○ 2024년 2/4분기 소득 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1분위(하위 20%)가 115만 9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7% 증가했으며, 소득 5분위(상위 20%)는 1,065만 2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1% 증가

- (1분위 소득) 경상소득은 사업소득($\Delta 12.6\%$)과 근로소득($\Delta 7.5\%$)이 감소했으나, 재산 소득(3.7%), 이전소득(10.5%)*이 증가. 비경상소득(45.5%)도 증가.

* 공적이전소득은 12.8% 증가, 사적이전소득은 4.9% 증가(전년동기대비 기준)

- (5분위 소득) 경상소득은 사업소득($\Delta 5.9\%$)이 감소했으나, 재산소득(35.5%), 근로소득 (8.3%), 이전소득(2.5%)*은 증가. 비경상소득(11.1%)도 증가.

* 공적이전소득은 0.8% 증가, 사적이전소득은 6.7% 증가(전년동기대비 기준)

◆ 정부, 「2025년 예산안」 발표 (8.27)

○ 정부는 8월 27일 “민생안정 · 역동경제로 서민 · 중산층 중심 시대 구현”을 목표로 국민이 원하는 민생과제에 집중 투자,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구조 개혁, 재정운용 혁신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기본 방향으로 한 「2025년 예산안」을 발표

○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위해 예산을 편성.

2. 노사 동향

◆ 대통령이 노동개혁 완수를 표명한 가운데 정치권은 고용부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갈등

- 대통령은 8. 29「국정 브리핑」에서 노사법치주의의 성과를 강조하고, 지속적인 노동개혁 추진 입장을 표명
 - 대통령은 노사법치 확립으로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노조 간부 자녀 우선 채용과 같은 불공정한 관행도 개선되었다고 설명
 - 또한, 대통령은 ① 유연근무 등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② 경직된 임금체계 개선, ③ 노동약자 보호 등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입법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발표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8. 26 김문수 고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으나, 야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파행
 - 야당은 김문수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지적하며 사퇴를 요구한 반면, 여당은 후보자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강조
 - ※ 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8. 27 국회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김문수 고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등 고용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계속될 전망
 - 한편, 김문수 후보자는 동 청문회에서 노조법 제2·조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 표명

◆ 고용부는 임금체불 예방과 노동약자 보호에 주력

- 고용부는 8. 26부터 9. 13까지 3주간 5천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함과 동시에 각 지방관서별로「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한다는 계획
 - * 고용부는 임금체불로 집단 노사갈등이나, 건설현장 농성 등이 발생하는 경우 기관장이 기동반과 함께 즉시 현장에 출장하여 임금체불 청산 지도
 - 고용부의 사업장 근로감독은 최근 임금체불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업(IT 포함)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실시될 예정
 - 또한, 고용부는 고액(1억원) 및 집단체불(피해 근로자 30인 이상)이 발생할 경우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노사 관련자 면담, 관계기관 협조 등을 통한 지도에 나선다는 방침
-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여파로 쿠팡 그룹 일부 계열사에서 다수의 이직자가 발생한 가운데 고용부는 8. 28 쿠팡 계열사 임금체불 대응체계 가동 발표

- 큐텐 계열사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서울강남지청, 서울남부지청)은 8. 19부터 대응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금체불 발생 계열사 대표 면담, ▲이직자 재취업 설명회(8. 29) 등을 진행
- 고용노동부는 ① 피해근로자 대지급금 지급, ② 체불근로자 생계비 용자 등 임금체불 해소와 피해근로자 생계안정 지원에 집중한다는 방침
- 한편, 정부는 8. 27「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고용부 예산안 의결
 - 2025년 고용부 예산안의 총 지출 규모는 35조 3,661억원으로 ① 노동약자 보호, ② 일·가정 양립(저출생) 분야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며 올해 대비 1조 6,836억원 증가

◆ 더불어민주당은「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발족 예정

- 더불어민주당은 9. 2「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이하 ‘실천단’)」을 발족시킬 예정
 - ※ 실천단은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21대 총선 당시 맺은 정책연대의 일환으로 구성
 - 실천단은 50여명 안팎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이며 총선공약 이행 로드맵 마련 등 한국노총과의 정책 연대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

◆ 주요 완성차 및 조선사 노사관계 불안 증가

- 한국GM 노조가 게릴라 파업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의 과도한 요구로 인한 임단협 난항 지속
 - ※ 한국GM 노사는 지난 7. 23 ① 임금 101,000원 인상, ② 일시·성과급 1,500만원 지급, ③ 부평·창원공장에서 생산 중인 기존 차종의 제품 업그레이드를 통한 물량 확보 등에 합의했으나, 투표 참여 조합원 52% 반대로 부결
 - 한국GM 노사는 8. 27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으나, 한국GM노조가 여전히 기존 합의안보다 상향된 임금 및 성과급, 복리후생 원상회복 등을 요구함에 따라 합의사항 없이 종료
- 한편,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임단협 교섭 난항 등을 이유로 8. 28 오후 3시간 부분파업 진행·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주요 요구사항 : ▲기본급 159,800원 인상, ▲정년연장(국민연금 수급연령과 동일), ▲성과급 산출기준 변경
 - 현대중공업지부는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안을 견지하면서 추가 파업(9. 4, 9. 9)을 예고하고 있어 임단협을 둘러싼 노사갈등 증가 우려



2024년도 광주경총 기업지원 사업안내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2024년도 광주경총 기업지원 사업안내

NO	사업명	지원대상	기업지원(금액)	문의 (062)
1	청년 일도약 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인 이상 우선지원기업 ◦ 만 15세 ~ 34세 이하 청년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간 : 1인 720만원 (월60만원) ◦ 2년후 : 1인 480만원 	716-3424
2	뿌리 일도약 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지역 뿌리기업 중 청년,신중년, 중장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 ◦ 만 35세 ~ 49세 채용 시 ◦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간 : 1인 720만원 (월60만원) 	716-3503
3	중장년 내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인 이하 중소기업 ◦ 만 40세 이상 재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직자 이전직 상담, 생애설계 등 기업별 무료 상담 	609-8964
4	청년성장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지역 신규 인력채용 기업 (관리자 및 청년층 신입직원) ◦ 신규 채용기간: 최근 1년이내 ◦ 청년층 연령: 만 15세~39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친화 조직문화 및 직장 온보딩 프로그램 제공 	654-3427
5	북구 굿잡매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광역시 및 북구 일대 중소기업 ◦ 광주광역시 구직자(취업준비 청년, 여성, 중장년 등) ◦ 지역 내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혹은 지역 인재를 구인하는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일자리 동영상 제작 ◦ 취업매칭 지원 ◦ 고용부 워라밸 인증지원 	654-3427
6	소규모 사업장 산업안전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인 미만 제조업 무상 컨설팅 지원 ◦ 회원사 산업안전 매뉴얼 제작시 전문가 자문·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월 1회 이상 방문 컨설팅) ◦ 안전관리 담당자 교육 	716-3501